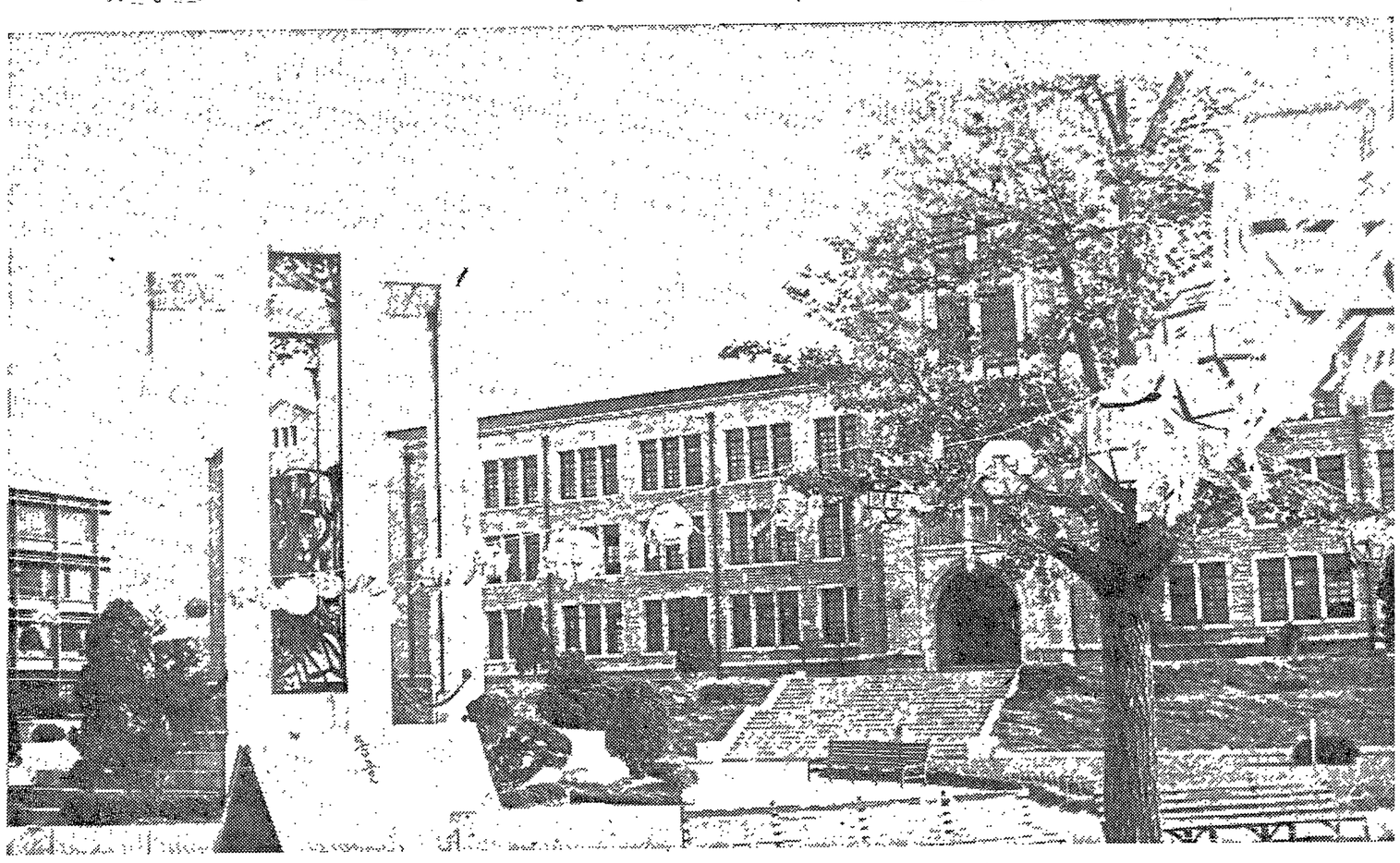
激變의 時代를 指向하는 學園



東大新聞

發行人 徐 燉 珏
編輯人 韓 相 範
主幹 宋 赫
編輯部長 金 衡 均

發行所
우편번호 100
서울市中区筆洞3街26
東国大学校内
東大新聞社
電話交換 ㉗8131－9
本社直通 ㉗8577

每週火曜日發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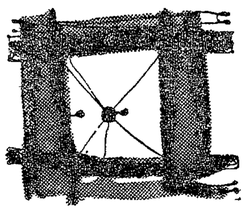
(축) 開校67周年

東大新聞社
社員一同

白衣에 부쳐서

徐 廷 柱

億千万年을 自由로 压縮한
秒와
分과
時。
그 芥子씨보단 더 적은 毛細空마다엔
에베레스山脈을
들낙날낙 들낙날낙 하게 해가지고
蒲蛇라도 친자식같이 사랑해가겠나뇨?
예。
제일로 지독한 地獄이라도 몰라들어
億千万年 고치고 있겠나뇨?
예。
늘 菩提만을 지녀껴고 가고 또 가셔
글힘이 없겠나뇨?
예。
꿈에도 좁쌀알만한 거즛 한알맹이도
없이
弐百五拾戒律을 언제나 지키겠나뇨?
지켜서 사람의 百푸로의 骨骸을 죽어
도 에누리 하지 않겠느뇨?
예。
구름 한점 없는 날의 하늘 한복판의
太陽같이
그대의 知慧로서 어디거나 비치겠나뇨?
예。
그럼 이 하늘과 땅과 永遠한 歷史의
主役 가을이로다。
작정하여 그 大乘의 本分을 지켜
헤트러지지 않겠나뇨?
예。
예。
우리 理想의 象徵一흰 코끼리가 걸어
간다。
몰아치는 暴風雨속 번쩍이는 번개에
그흰 어금니가 菩提의 門光으로 번쩍
번쩍거린다。



告辭

理事長 朴碧眼

親愛하는 教授職員·学生여러분!
東大開校 67주년을맞은 오늘, 우리 東国学院家族들이 한자리에 모여, 東国의 빛나는 역학사를 回顧하고 새로운 도약을 決意하게 된것을 감개깊게 생각하는 바입니다。 먼저 学校法人 東国学院을 대표해서 이 자리를 빌내주신 內外貴賓과 특히 자매교인 日本駒沢大学総長 구레바야시박사께 敬意를 표합니다。

本校는 韓国仏教界의 先覺者들이 民族的 悲運의 時代인 1906년에, 고등교육을 통한 仏教維新과 救国人材養成을 目的으로 東大門밖 元興寺에서 開校하였던것입니다。 開校이후 本校는 亡国의 不運을 맞아야했고, 軍国主義日本의 탄압아래서 강제폐쇄의 쓰라림을 수차나 겪었읍니다。 그때마다 本校는 校名을 바꾸어가면서 七顚八起, 大学을再建하고 守護하여 前進의 용기를 드높혀왔읍니다。 本校가 온갖 역경을 超克할수있었던것은, 韓国仏教 1600여년의 底力과 불교의 보살정신이였읍니다。 本人은 이순간, 本校를 지키고, 이골짜기를 마련하신 歴代이사진, 総·学長 그리고 교수님들의 공헌에 감사하며, 오늘의東国人들에게 부하된 책임의 막중함을 통감하는바입니다。 本校의 成長과 発展은 本校에만국한된것이아니고, 民族의 運命과 항시 직결되어 온것을 確信하기 때문입니다。

이제 67주년의 경사스러운 날을 맞아 本人은 다음 몇가지를 들어 東大構成員의 사명을 환기코자합니다。

첫째, 本校의 建学理念인 仏教精神과 이 精神을 주축으로 大学人들은 自己改革을해야 하겠읍니다。 仏人과 社会発展의 過程은 언제나 改革의 意志를 요구합니다。

우리 大学은 民族文化遺産의 계승과 創造에 공헌해온 伝統性을自負합니다。

그러나 그 伝統의그늘에서는 흔히, 保守性과 폐쇄적傾向이 나타날 憂慮가 없지 않기 때문에 不断히 自己改新이 있어야 합니다。 부처님은 일찌기 나한 사람의 重要性과 完成을 强調한바있읍니다。

한 社会를 維持하고 発展시키는 原動力은 指導者의 力量도 重要하지만, 이에 못지 않게 構成員, 한 사람 한 사람의 発展志向的인 自己確立이 前提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한 사람의 不実, 한 사람의 貧実을 外面하는 態度나 마음가짐은, 全体를 그르치고, 和合의 秩序를 파괴하는 原因이 됩니다。 지금 우리에게 和合団結이 없이는 国内外的으로 몰아치는 変化의 격랑속에서 大学의 使命을 完遂하기가 매우 어렵다는것을 認識해야 하겠읍니다。

現代 産業化 社会에서는 物量本位의 価値観전도로 人間回復이라는 재로운 課題가 提起되고 있읍니다。 여기에서 우리는 仏教精神의 現代的인 具現문제가 仏教나 本校自体만의 문제가 아님을 알게 됩니다。 仏教는 人間이 自覚한 最高의理想이고, 人間完成의 지혜인가봄에, 모든 나라의 모든 사람에게 전파되고 実踐되여야 합니다。

우리 東国人들은 建学理念인 仏教人本然의 役割을 다해야할 責任과 義務를 느껴야할것입니다。

둘째, 本校는 長期発展計画의 一環으로 現在師大建物 新築工事를 활발하게 進行하고 있읍니다만, 大学의 発展은 施設拡張에 못지 않게 敎育과研究, 봉사기능을 착실하게 수행하는데서 이루어진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교수와 学生여러분은 大学発展의 主体로서 교육과 研究에 몰두해야하며 生勤하는 年中無休의 学風을 이룩해야합니다。 지혜를모아 胆国과人類의 発展에 聖火를 높이드는 東国을 건설합시다。 大学史를 빛내는 学風形成에 最善을 다합시다。

끝으로 오늘 勤務·勤続 表彰을 받으신 교수·직원여러분께 無限한 찬사를 보내고, 開校紀念日을 맞아 全東国人에게 부처님의자비가 같이 하기를빕니다。

生動하는 學風形成

佛教精神으로 改新

創造的 東國史自負

和合으로 激流이겨

紀念講演

總長·徐燉珏

존경하는 高僧大德스님과 內外貴賓여러분, 親愛하는 教職員과 学生여러분!

먼저, 오늘 東国大学校의 開校67주년을 맞이하여 뜻깊은 紀念式을 올리게되는 栄光과 기쁨을이 자리에 모이신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회고하건대, 甲午更張以後, 정난과 도처에 밀려오는 開化의 外的 자극을, 如実히 直視하는지혜의 눈을 가졌고, 또 60년前 当時의 時代的 要請이 무엇인가를 자각하고 불교적 建学精神에의거한 고등교육기관의창설을 착안하였던 宗団 先覺者들의 英断에 충심으로 경의를 표하며 사령 意識에 투철하였던 그들에 의하여 창설된 建学의 거룩한 뜻을다시한번되새기려고 합니다。 그후고귀한 우리 文化를받아 살하려던 일제의植民政策에 며하여 不退転의 저항의지를 발휘하여, 多分히 仏敎的 思想風土에서 形成된 우리文化의 적극적 継承과 創造的 啓発에 참여하였던 자랑스런東国史에 긍지를 느끼며 선배들의 업적에 대하여 이 자리를빌어 아낌없는 찬사를보내고자합니다。 解放直後 社会的, 사상적 激動期에도自由의가치와 의미를상실하지 않고 확고한 민족주체의식을 견지하여 온것은 실로 구국적자세로서 混乱을 극복하였고, 이후 東国大学校는歷代 総長님들의 일관된 학풍으로 열고 변화하는 흐름속에 뛰어들어 現実問題와 正面으로 対決하면서 불굴의 진취성을 발휘하여 激流에 휩쓸리지 않는 北極星같은 座標의 定立이 절실하였읍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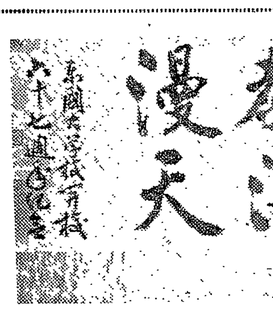
맘은 지성에 의한 座標定立이없으면 羅針盤을 잃은 배처럼 거센 파도에 밀려 좌초의 危機에 봉착한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本人은 모든 東国人을 東国이란 由緒있고 巨大한 배를 함께 탄, 즉 運命을 같이한 사공으로 비유하고자 합니다。

따라서 우리에게는 東国의 배를 知性의 羅針盤에 의하여 豫定된航路를 따라 約束된 新天地까지 몰고갈 責任이있는 것입니다。 같은배를탄 사공들이서로 협력할 첫째의 교훈은和合입니다。 和合이 깨질때 배는 엉뚱한 方向으로 無益한 航海만을 되풀이하는것입니다。 그래서 本人은 이자리에서 이 순간全東国人에게 다시한번和合을 强調하겠읍니다。 그리고 和合을깨는 処罰에 対하여는 가차없이 준엄한 応答이 있으리라는 것을 다짐하겠읍니다。

끝으로 오늘의 開校紀念式典에 姉妹関係에 있는 日本 駒沢大学校구레바야시総長과 사꾸라이교학처장두분이 同席한데 대하여 여러분과함께 뜨거운 感謝의 뜻을 表하며 紀念辞를 마치고자합니다。

佛光照敎漫天海



人間復歸

梨樹

人間機械観、進化論的人間価値観이 崇高한 人間의 存在意義와 가치를 상실하며 人類는 드디어 一個의 進化된 野生動物로 전락되며 人間 終末의宣告를 받게 된것입니다。 그러므로 結論的으로 르네쌍스는 사람 理性、感性的人間)을 찾고 神을 잃었는데 오늘에는 흘륭한 機械를 얻고 사람을 잃었읍니다。 이곳에現代의 先知者로서의 주어진 世紀的使命은 人間의 存在意義、価値와 존엄성을 다시찾아 人間의 진실에로 복귀하는운명이였읍니다。

사람은 누구나 다「仏性」을 지니고 있으니 그 仏性을 発見하고 되찾는것이 곧「人間成仏」의 길임을 発明함이였읍니다。

이「人間成仏」이라는 崇厳한 敎들는 이미 2千5百餘年以来, 「人間復歸, 価値具現」의 찬란한 精神文化史를 創造하여 왔거니와 今後를 向한 歷史的使命은더욱 重大합니다。

人類의 知能은 近世에 있어서 物理、化学的法則을利用하여 高度의 科学文明을 創造함과 아울러 精神的原理 原理마저物理、化学的法則을適用시키므로 드디어 唯物論的 人間機械観、進化論的人間価値観이 崇厳、神聖한 人間的存在意義와 가치를 말살되며 人類는 드디어 一個의 進化된 野生動物로 전락되며 人間 終末의宣告를 받게 된것입니다。 그러므로 結論的으로 르네쌍스는 사람 理性、感性的人間) 을 찾고 神을 잃었는데 오늘에는 흘륭한 機械를 얻고 사람을 잃었읍니다。 이곳에現代의 先知者로서의 주어진 世紀的使命은 人間의 存在意義、価値와 존엄성을 다시찾아 人間의 진실에로 복귀하는운명이였읍니다。

수리수리

人間復歸

浩作

(利和同均以上六和成就)

이와 같이 오늘의 歷史的証人인 여러 先知者께서는 부처님이 이 世上에 오신날의 참뜻을 깊이 되새기며 20世紀末的 至上課業인「일어버린 人間회찾기」運動을 힘차게 展開하여야 되겠읍니다。

그리하여 現代의 人類를 機械의 奴隷로부터 解放시키어 참 永遠한 理想社会를 実現하도록 두손모아 부처님앞에 宣誓하며 이것을 歷史의 証人여러분에 呼訴합니다。

〈李 鍾 益〉

◇揮毫·吳法眼 副總長

(축) 동국대학교 개교 67주년
동국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문교부
장관 민 관 식

慶祝週間을 뜻깊게

〈1〉

今週는 本校「開校 제67주년 기념일」과 仏紀제2517년「부처님 오신 날」이 3일의 時差를 두고 그속에 끼어 있어 어느때보다도 慶祝의 濃度가 짙은 週間이라고 할수있다。

또 으레이 이맘때가 되면 이兩大 慶祝日을 중심으로「東國祝典」이란 이름의「페스티벌」이 펼쳐지는데 특히 금년에는 財団法人 綜学校가 한 자리에서 벌이는「東國体典」도 이週의 다지막을 수놓게 되어 있어 금년의 이 週야말로 文字그대로 慶祝과 祝祭의 週間이라고 하지 않을 수 없다。

5월의 싱그러운 太陽아래 아카시아의 좁내음도 그윽한 東岳에, 가득한 慶祝의 뜻을 살리고 짙은 祝典의 意義를 되새길 수 있는 한 週가 되기를 念願하면서 이 週를 맞는所懷의 몇마디를 간추려 보려한다。

〈2〉

開校 67週年 하면 中世에 起源을 두고 있는「유럽」의 大学들에 比해 日淺하다 하겠으나 우리나라에서는 五指에 들 수 있는 오랜 歴史라고 하겠다。歴史뿐만이 아니라「信実」·「慈愛」·「摂心」·「慶世」를 校訓으로 仏教的 人材養成에 邁進해온 本校는 과거의 伝統 또한 빛나는 바가 있다。

그러나 오늘날 本校는 歴史와伝統에 相応하는 地位를 占하고 있는 가를 自省할 때에 肯定的이기에는 너무도 아쉬움이 많음을 어찌 할 수 없다。여기에서「中興」의 旗幟는 不可避해졌고 現在의우리는 이러한 中興을 위해 발버둥치고 있는 중이다。

現在란 過去에 그 터전을 두고 있음은 물론이다。그럼 점에서 過去가 중요하다는 것을 틀림 없다。

그러나 오늘을 사는 우리들에게는 過去보다는 現在가 더욱 切実한 問題이기 때문에 過去보다도 더 重要한 것은 現在라고 아니 할 수 없는데 過去의 伝統이 빛남에 比해 現在의 位置가 조금이라도 微하다면 現在는 더욱 우리에게는 切実해지고더욱重要해 지는 것이다。

比해 日淺하다 하겠으나 우리나라에서는 五指에 들 수 있는 오랜 歴史라고 하겠다。歴史뿐만이 아니라「信実」·「慈愛」·「摂心」·「慶世」를 校訓으로 仏教的 人材養成에 邁進해온 本校는 과거의 伝統 또한 빛나는 바가 있다。

그러나 오늘날 本校는 歴史와伝統에 相応하는 地位를 占하고 있는 가를 自省할 때에 肯定的이기에는 너무도 아쉬움이 많음을 어찌 할 수 없다。여기에서「中興」의 旗幟는 不可避해졌고 現在의우리는 이러한 中興을 위해 발버둥치고 있는 중이다。

現在란 過去에 그 터전을 두고 있음은 물론이다。그럼 점에서 過去가 중요하다는 것을 틀림 없다。

그러나 오늘을 사는 우리들에게는 過去보다는 現在가 더욱 切実한 問題이기 때문에 過去보다도 더 重要한 것은 現在라고 아니 할 수 없는데 過去의 伝統이 빛남에 比해 現在의 位置가 조금이라도 微하다면 現在는 더욱 우리에게는 切実해지고더욱重要해 지는 것이다。

〈3〉

開校 67週年 하면 中世에 起源을 두고 있는「유럽」의 大学들에 比해 日淺하다 하겠으나 우리나라에서는 五指에 들 수 있는 오랜 歴史라고 하겠다。歴史뿐만이 아니라「信実」·「慈愛」·「摂心」·「慶世」를 校訓으로 仏教的 人材養成에 邁進해온 本校는 과거의 伝統 또한 빛나는 바가 있다。

그러나 오늘날 本校는 歴史와伝統에 相応하는 地位를 占하고 있는 가를 自省할 때에 肯定的이기에는 너무도 아쉬움이 많음을 어찌 할 수 없다。여기에서「中興」의 旗幟는 不可避해졌고 現在의우리는 이러한 中興을 위해 발버둥치고 있는 중이다。

現在란 過去에 그 터전을 두고 있음은 물론이다。그럼 점에서 過去가 중요하다는 것을 틀림 없다。

그러나 오늘을 사는 우리들에게는 過去보다는 現在가 더욱 切実한 問題이기 때문에 過去보다도 더 重要한 것은 現在라고 아니 할 수 없는데 過去의 伝統이 빛남에 比해 現在의 位置가 조금이라도 微하다면 現在는 더욱 우리에게는 切実해지고더욱重要해 지는 것이다。

〈4〉

끝으로「東国祝典」에 대하여 言及하자면 한 마디로 모든 祝典行事는「東国中興」이란 命題에 「초커스」를 맞추어야 하겠다는 것이다。그런 命題가 아니더라도 적어도 知性의 祝典이라면 外勢보다는 内実에 그 特性이 있게 마련이지만 우리의 処地에서는 그것이 더욱 切実히 要望되는 것이다。

또한 外国 大学生들의 祝典을 보면 하루 정도로 祝典을 치르는 것이 常例로 되어 있다。그 大学의 特性을 살리는 行事를「피크」로 하여 변화를 없는 計画과 充実性으로 두번 정도의 치르는 것이다。그러기 위해서 事前 준비에는 많은 공 우리 東国의 中興과 直結되기 때문이다。

이런 점에서 本邦 唯의 最高 教育機関으로서의 宗立 東大는 釈尊의 隆誕記念日을 맞음에 있어서 自身과 宗団, 그리고 社会를 넘어 보편서 어떻게 하면 釈尊의 精神을 가장 잘 살릴 수 있는가 하는 점도 심각히 검토해야 할 것이다。

이와 같은 점에서 오늘을 새로운 建設을 期할 것인가를 되새기는 데에서 이 날의 意義를 찾고, 그 意義 속에서 慶祝의 보람을 찾아야 할 줄 안다。

크로즈업 文化遺産과 不條理의 斷面

人識知와 士風化文國韓

「메스미디어」는 知識을 商品化

檢證·批判·精神不在

一、센티멘털리즘의 過剰

審判이 없는 歷史

우리는 생각하기 보다 느끼길 좋아하고, 事由를 따져보기 보다는 안되는 이유에는 쉽게 체념해 버리는 경향이 있다。인간이 理性的이기 보다는 感情에 움직이기 쉽다는 것을 前提로 해석생각해 보더라도, 우리는 情에 휩쓸리고 마는 일이 더 심한것 같다。「데카르트」的인 合理性의 追求를 들먹이지 않더라도 너무나 감상적인, 눈물이 많은 생활에 젖어 왔다고 할까…。서민의 哀話가 짓든 抵抗歌를 불떠에 日帝시대에는 압制下의 설움이 노래로 나타났다고도 하고 六·二五事変직전에 유행된「울려고 내가왔던가」로 부터 60年代에 한창유행한「동백 아가씨」에 이르기 까지 눈물의 사연이 절절히 흐르고 있다。

위와 같은 경향을 歷史의 쫓費期에 있어서도 볼수 있다。4·19革命(1960) 당시에 온 市民이 틀고일어나서「李政権은 물러가라」고 외쳤다。그런데 마상 李承晩氏의 下野가 발표되고 그가 경무대에서 나와 한 市民의 資格으로 이화장으로 옮겨가게 되었을때에 벌어진 광경은 무엇이라고 표현해야 좋을지…。연도에 늘어선 市民은李承晩 氏에게 뜨거운 눈물속에 열렬한 박수를 보내고 있었다。물론 老愛国者에 대한 대접이라고 하거나 또는 한 人間에 대한 동정이라고 할 사람이 있으리라。그러나 歷史의 審判이란 過去의 功績이나 栄光이나 또는 인간의 정리로서만은 可能할수 없는 것이다。革命에서는 민중이 원용에 대한 심판으로 새로운 時代를 획한다는 것은 歷史의 転期에 있어서는 치루어야 할 代償이다。英国의 立憲君主制는 크롬웰革命에서 断頭臺에 오른 国王의 亡霊을 안고 있는 것이며, 프랑스 革命의 自由·平等·博愛는 루이 十六世를 기롯한 많은 희생을 거쳐 보아도 우리의 교육이「순응의 実現을위해 오늘을 살는 仏教가 열리만큼 社会的으로 그 機能을 다하고 있는가를 살피면서 이 날을 慶祝하는 바람직 한것이다。

그 所以는 本校는 仏教界의 人材養成에 그치지 않고 社会 各方面에 걸친「에리트」의 養成·輩出의「푸로데이지」가 더 큰 以上 그들에게도 仏教的 素養을 充分히 갖추게 하기 위한 仏教教育의 成果가 과연 어떠하며 意図하는 바가 如実한지의 与否를 分析해 봄으로써 실다운 仏教教育의 열매를 맺기 위한 契機를 찾아보자는 것이 前者의 理由이고 後者의 경우는 韓国仏教의 発展이 곧 東国의 発展이요 東国의 発展이 곧 韓国仏教의 発展이라는 図式関係로 보아 오늘의 韓国 仏教가 열마 만큼 社会的으로 機能을 다하고 있는 가는 곧 우리 東国의 中興과 直結되기 때문이다。

이런 점에서 本邦 唯의 最高 教育機関으로서의 宗立 東大는 釈尊의 隆誕記念日을 맞음에 있어서 自身과 宗団, 그리고 社会를 넘어 보편서 어떻게 하면 釈尊의 精神을 가장 잘 살릴 수 있는가 하는 점도 심각히 검토해야 할 것이다。

이런 점에서 本校는 仏教界의 人材養成에 그치지 않고 社会 各方面에 걸친「에리트」의 養成·輩出의「푸로데이지」가 더 큰 以上 그들에게도 仏教的 素養을 充分히 갖추게 하기 위한 仏教教育의 成果가 과연 어떠하며 意図하는 바가 如実한지의 与否를 分析해 봄으로써 실다운 仏教教育의 열매를 맺기 위한 契機를 찾아보자는 것이 前者의 理由이고 後者의 경우는 韓国仏教의 発展이 곧 東国의 発展이 곧 韓国仏教의 発展이라는 図式関係로 보아 오늘의 韓国 仏教가 열마 만큼 社会的으로 機能을 다하고 있는 가는 곧 우리 東国의 中興과 直結되기 때문이다。

이런 점에서 本邦 唯의 最高 教育機関으로서의 宗立 東大는 釈尊의 隆誕記念日을 맞음에 있어서 自身과 宗団, 그리고 社会를 넘어 보편서 어떻게 하면 釈尊의 精神을 가장 잘 살릴 수 있는가 하는 점도 심각히 검토해야 할 것이다。

문으로「東国祝典」에 대하여 言及하자면 한 마디로 모든 祝典行事는「東国中興」이란 命題에 「초커스」를 맞추어야 하겠다는 것이다。그런 命題가 아니더라도 적어도 知性의 祝典이라면 外勢보다는 内実에 그 特性이 있게 마련이지만 우리의 処地에서는 그것이 더욱 切実히 要望되는 것이다。

또한 外国 大学生들의 祝典을 보면 하루 정도로 祝典을 치르는 것이 常例로 되어 있다。그 大学의 特性을 살리는 行事를「피크」로 하여 변화를 없는 計画과 充実性으로 두번 정도의 치르는 것이다。그러기 위해서 事前 준비에는 많은 공 우리 東国의 中興과 直結되기 때문이다。

이런 점에서 本邦 唯의 最高 教育機関으로서의 宗立 東大는 釈尊의 隆誕記念日을 맞음에 있어서 自身과 宗団, 그리고 社会를 넘어 보편서 어떻게 하면 釈尊의 精神을 가장 잘 살릴 수 있는가 하는 점도 심각히 검토해야 할 것이다。

이와 같은 점에서 오늘을 새로운 建設을 期할 것인가를 되새기는 데에서 이 날의 意義를 찾고, 그 意義 속에서 慶祝의 보람을 찾아야 할줄 안다。

〈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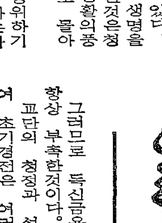
끝

佛敎의 經濟倫理

法따라 財産蓄積、施與德目 강조

初期부터 資本主義的 견해 成立

〈佛敎大교수〉 李 載 昌



① 佛敎 敎団은 原始佛敎 이래 出家修行者와 在家信徒로 構成되어 있기 때문에 佛敎經典에 보이는 經濟行爲에 관한 倫理的인 評価도 出家者와 在家者의 것을 区分해서 살펴야 온당할줄 압니다。 実際로 両者에 관한 經典의 言及에 懸隔한 差異가 있음으로해서 両者의 것을 区分하는 것은 当然之事라고 할지 않을수 없읍니다。 그러나 여기에 주어진 題의 性格上 이들은 在家者에 관한 經済倫理에 焦点을 맞추어 叙述할 것을 미리밝히는바이다。

② 우리는 古来로 佛敎는 財思想의 傾向이 顯著하다고 생각해 왔고 또 実際로 그러한 敎說도 보이지만 그것은 어디까지나 出家者를 위해서 說해진 것이지 在家者에 대해서도 그렇다는 것은 아니다。 一般 在家信徒에대해서는 오히려 積極的으로 現世的인 財를 営利를 위해 営営하고 있는 것이다。 財의 集積이란것은 佛典은 認하고 있는 것이다。 다만 그것을 향락적인 消費에 쓰지 말도록 努力精励에의해 富를 획득하였다고 하더라도 佛敎에서는 그것을자기혼자 独占해서는 안되고 他人에게 주어야 한다는 것이다。 財를 모은 사람에 대해서는 이러한 特히 出家修行者에 그들을 福田이라고 하는 큰 宗敎的 공덕을 갖어온다고 한다。 그들에게 施与하면 공덕을 많이 아무리 前述한 바와 같이 努力精励에의해 富利를 획득하였다고 하더라도 佛敎에서는 그것을자기혼자 独占해서는 안되고 他人에게 주어야 한다는 것이다。 財를 모은 사람에 대해서는 이러한 特히 出家修行者에 그들을 福田이라고 하는 큰 宗敎的 공덕을 갖어온다고 한다。 그들에게 施与하면 공덕을 많이 쌓는다는 것이다。 実際로 両者에 관한 經典의 言及에 懸隔한 差異가 있음으로해서 両者의 것을 区分해서 살펴야 온당할줄 압니다。 財의 集積이란것은 佛典은 認하고 있는 것이다。 다만 그것을 향락적인 消費에 쓰지 말도록 努力精励에의해 富

特輯 부처님 오신 날 特輯

檀君說話

<君檀>壽神山 의閼神山 山異智◇

一、建國說話의問題點

韓民族共有의 建國說話가 正史인 三國史記에는 片言半句조차보이지 않았다가 麗末李朝初에 이르러 갑자기 보지못하였던 民族的 試煉을 겪고 있던 高麗朝의 高宗後半期에서 비로소 仏敎的 國民史의 性格이 포함되어있는 三國遺事를 비롯하여 國祖檀君과 三國始祖 朱蒙과 赫居世의 神婚으로誕生한 檀君說話를 다루는데 있어서는 普通檀雄과 熊女와의 婚姻에서 誕生한 檀雄天王의 說話이기에 그해석에 많은 問題點을 지니고 있었다。

즉 이와같이 健全한 判斷으로서는 이해할수 없는 奇異한 단군의 出現說話가 歷史的現實의反映으로 파악할수 있느냐는 問題를 비롯하여 이것을 歷史的現實의 反映으로 認識하는 경우、소위 단군朝鮮의 性格과 時期設定 그리고 그뒤에있었다고하는 箕子朝鮮과의 關係가 究明되어야만古代朝鮮史의 系統化가 이루어 지는것이다。特히 이說話와 유사한 建國說話의 構成內容이 決코 우리民族만의 自生的인 것이 아니였다는 疑問을 갖게하여 歷史的現實의反映이라고 하기보다 思想的인 面과 文化伝播面에서 追究하는데서 그치는것이 穩當하다는 主張도나올만한要件을가지고있는것이였다。

한편 史料로서의 三國遺事와帝王韻記에 대한 価値評価에도 단지 많은 問題가 뒤따르고있을뿐 아니라、一部의 論者가 主張하는바와같이 이 建國說話가 歷史的現實과는 全然 관계없는 虛構의說話에 지나지않음이 하면 古代朝鮮의出發點을 어디서부터 잡느냐는 것이 爭點이되며 이와같은 說話가 全國民의 보편적인 建國說話로 進展하기까지의 過程과 해박한 知識을 망이하여 더욱 明白하게浮刻하여 어떤 歷史的 現實의 反映이였다고 보려는 學者도 없지않았다。그代表的인것이 崔南善의 不咸文化論(「朝鮮及朝鮮民族」30頁)및「兒時朝鮮」에 보이는 그의 見解(同書25~26頁)였다。

즉 同氏는 1927년에 이르러 그의 독특한 國史觀과 해박한 知識을 바탕으로 檀君을 「天」과 「巫」를 뜻하는 蒙古語「텡그리」와 우리말에 「巫」를 뜻하는 「당골」또는 「단골」의 音으로 추정하고 政治가 祭神과 一致하는 古代의 神政時代를 그 이론의 근거로 삼아 檀君神話만은 怪誕하다고 斷定하여 檀君神話만은 學者간에는 이說話를 解明

特輯 부처님 오신 날 特輯

西洋哲學과 佛教

「쇼펜하워」의 哲學과 佛教

人間은 황망한 방위를 가야하는 경우도 있고 文化의 꽃피는 生活을 보낼수도 있을 것이다。

그러나 어느 길도 人間에 있어서 安全하다、充分하다고 할만한 境地는 아니다。

열마나 기쁨이 없는 危險에 補色당한 속에 열마나 人間은 그 짧은 瞬間의 生을 지내고 있단 말인가 (류크레디우스)

大多數의 사람들의 生活은 自身의 生存이 結局 衰失되고 말 것을 알고 있으면서 이것을 保存하고 있는 끊임 없는 鬪爭을 하고 있다。

이와 같은 피투성이의 生存을 무엇때문에 이와 같이 계속하면서 持續하려 하는가 (쇼펜하워 <苦腦의 生>에서)

쇼펜하워는 전통적인 近代의 合理的精神에 反하여 人間을 움직이고 있는 것이 「理性」이 아니라 生存의 追求、「意志」라고 宣言하고 人間을 「盲目的 意志야말로 人間을 苦腦의 바다로 침몰시키는 근원이며 그때문에 마침내 人間은 苦難으로 가득 찬 航海의 最終目標인 죽음에 이른다고 告한다。

이 苦의 海原으로부터 人生을 救出해 낼 수 있는 길은 오직 人生存의 快樂 (苦腦) 으로부터 脫出하는 것이며 生의 盲目的意志를 否定하는 것이라는 것을 後期의 主著 <意志와 表象으로서의 世界>에서 示唆하고 있다。

그는 後期의 自我의 基本的傾向은 人間을 모순을 和解시키고 總合하고 統一하는 쪽으로 있다는 二元論과 모순을 포함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一元論이라고 主張하고 있다。

이것은 순수한 인식주체 (이념) 이라는 나와 世界와의 不斷한 만남이다。

이것이 「生存時間」이다。

그리고 具体的 「生存時間」은 過去 現在 未來의 三相의 統一체이다。

이것은 志向하고 있는 色心不二의 생존으로부터 超越시켜 욕망없이 사물을 보게 하는 것이 認識、美의 存在한 것이라고 말하고 만일우 주 (유크레디우스) 의 「理性」이 아니고 살려는 生存의 意志」라고 宣言하고 人間을 「盲目的 意志야말로 人間을 苦腦의 바다로 침몰시키는 근원이며 그때문에 마침내 人間은 苦難으로 가득 찬 航海의 最終目標인 죽음에 이른다고 告한다。 끝 결국 이러한 人生航路를 비긴다면 그 무서운 暴風을 피하여 항구에 들어가는 것이 最善의 方法이라고 말하고 「禪의 境地」에 到達해야 한다…나 이제 사람은 否定한 사람을 超越하여 모든 苦惱라고 認定하고 모든 苦難을 自己의 意志否定의 境地에 到達해야 한다…나 이라는 글에서 그는 「모든 사람에게 愛情을 품고 그리고 最後에는 世上의 모든 苦惱를

67名의 同門에 設問으로 알아본 東國67大學生活의 變貌

佛教理念속에 「抗日闘争」「民主守護」로 작업복人氣、60年代후 既成不信風潮

本校 開校67주년을 맞아 67人의 同門에게 東國67년의 学生生活을 들어본다。1906년 明進学校 時代부터 오늘날의 東国大学校까지 東国의 門을 거쳐간 同門들을 大別해서 開校에서 解放까지, 해방이후부터 6·25動乱까지, 6·25이후 4·19까。4·19이후 現在까지의 4개로 분류, 당시学生活의 片貌를 엮었다。이번 동문들의앙케이트 조사에 주어진 設問은 ①学生들의 意識에 가장깊게 영향을 주었던 思想은 어떤것이 었읍니까? ②学生生活에 미친당시의 社会風潮는 어떠한 첫들이었읍니까? ③当時学生들의 職業観은? ④東国人의 讀書傾向은? ⑤教授님들 과의 접촉정도는 어떠했읍니까? ⑥当時学生들의 복장은? ⑦東大의 자랑을 들수있다면 어떤 것이겠읍니까?

<정리·尹 太 京 記者>

〈開校에서解放까지〉

慈悲와 智攘의 光明을 드높혀 온 仏教ㅣ。우리 民族史와 民族의 連綿한 伝統은 仏教속에서 이루어졌다。三国時代에서 高麗에이르는 民族의 道程에는 仏教가指導精神이었고、文化創造의 根幹이었다。그러나 李朝5백년간의 抑仏政策과 儒教一尊의 정책과 부질없는 党争의 악순환은 民族的 主体意識마저 鈍化했다。

그러니까 舊韓末ㅣ。韓半島에는 西欧의 文物과 生理를 앞서 받힌 日本의 침략으로 民族的悲運의 닥아오고 있었다。이러한悲運의 季節에 創設된것이 本校였다。仏教理念아래 教育救国을 目標로 했다。나라를 지키겠다는護国思想은 新羅以来、韓国仏教의特色이다。護国思想으로 民族的主体意識을 불러 일으키고 仏教維新을 이룩하려는것이었다。

本校의 창설당시는 校名이 明進学校였다。

全国사찰의 淨財를 모아 1906년5월8일 開校한 것이다。元興寺 (現昌信国校터) 에서 그것도 学僧반을 대상으로 近代的인 교육이 시작되었다。1910년仏校師範学校、14年 仏教高等講院、大学校) ▲李外淵(50年 本校教務課長) ▲南部泳(52年 経済科卒·本校 師長) ▲崔鶴璇(51년 国文科卒·本校教授) ▲賈明秀(53年 政治科·国会議員) ▲崔載九(51年 国文科卒·国会議員) ▲金鎭禧(51年 政外科卒·서울신문논설위원) ▲崔致根(51年 国文科卒·경향신문편집부국장) ▲金殷夏(51年 政治科卒·国会議員) ▲洪淳池(51年 史学科卒·대일유업대표이사) ▲張金宮(52年 国文科卒·駐韓中国영사관 부영사) ▲李昌億(52年 政治科卒·松谷女高교장) ▲洪蔡錫(55年 法学科卒·한영공업주식회사) ▲李昇雨(56年 経済科卒·조흥은행 외국부차장) ▲金東正(57年 法学科卒·본사) ▲鄭泳鎬(57年 経済科卒·GMK Korea (株)) ▲許東華(57年 国민은행 혜화동 지점장) ▲崔炯祐(63年 政治科卒·国会議員) ▲尹青光(63年 英文科卒·MBC、TV 작가실) ▲韓竜煥(英文科卒·小説家·本校 仏教科卒·本校 仏教学科卒·제1무임소장관실근무) ▲金仁圭(64年 政外科卒·東大附中교사) ▲金東奭(59年 政治科卒·건설부 해외협력관실) ▲李栄造(60年法学科卒·韓国電力○○理事) ▲崔炯祐(63年政治科卒·国会議員) ▲尹青光(63年英文科卒·MBC、TV 작가실) ▲韓竜煥(英文科卒·小説家·本校 仏教科卒·本校 仏教学科卒·제1무임소장관실근무) ▲金仁圭(64年 政外科卒·제1무임소장관실근무

佛敎精神으로 67個星霜

8日, 開校67周年紀念式盛了

20年勤務者三등10名表彰

姉妹大學 駒澤大總長에 名譽哲博

開校67周年의 경사스런 紀念式이 8일 오전10시부터 吳法眼 副總長을 위시하여 내외귀빈 다수와 学生들이 참석한 가운데 성대히 거행되었다. 특히 이날 紀念式에는 本校姉妹校인 日本駒沢大学「구레바야시고도」總長과 教務処長이 徐敏珏총장의 초청으로 참석, 자리를 빛냈는데 총장명을 메운 이날 式典에서는 朴碧眼理事長이 敎授·職員가운데 20년근속자 7명을 비롯 2명과 10년근속자 7명을 각각 표창했다.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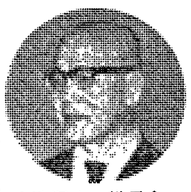
內外貴賓多數參席

『六七年前本校를創設한 仏教界의 선각자들에게 경의를 표한다』고 말하고 『전통에 수반하는 名門校로서의 中興에 저해되는要素는 과감히 제거해서 東国人의 和合을 이루자』고 당부했다.

朴碧眼理事長은 告辞에서 『한민족의 雄飛은 全体의 和合을 통해야 한다』고 말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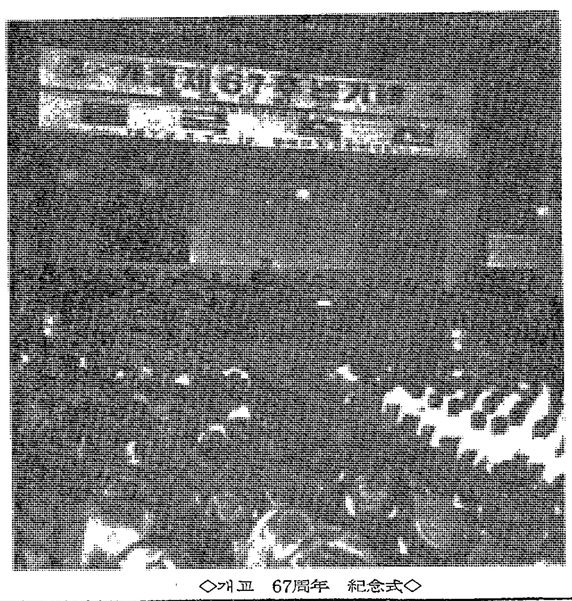
이어 開校六七周年을 紀念하기 위해 참석한 자매교 日本駒沢大구레바야시고교 總長에게 명예 철학박사 학위가 수여되었다. 구레바야시총장은 答辞에서 『同一한 建学理念으로 학문의 연구에 매진하는 東国大学校에서 박사학위를 받게되어 무한히 기쁘다』고 말하고 『東大캠퍼스에 仏教정신이충일한 모습을 보고깊은감명을받았다』고 말했다.

이날 朴碧眼理事長은 20년근무자 李昇旭박사를 비롯한 근무·근속자 10명을 표창했는데 특히 本校 수위로 근무하다 송년한 홍매주 수·목요일에 박물관



◇長総 大沢駒◇

三師依礼로開式한開校紀念式에서 徐総長은式辞를통해



◇개교 67周年 紀念式◇

內外貴賓多數參席

開校67周年의 경사스런 紀念式이 8일 오전10시부터 吳法眼 副總長을 위시하여 내외귀빈 다수와 学生들이 참석한 가운데 성대히 거행되었다. 특히 이날 紀念式에는 本校姉妹校인 日本駒沢大学「구레바야시고도」總長과 教務処長이 徐敏珏총장의 초청으로 참석, 자리를 빛냈는데 총장명을 메운 이날 式典에서는 朴碧眼理事長이 敎授·職員가운데 20년근속자 7명을 각각 표창했다.

◇長総 大沢駒◇

三師依礼로開式한開校紀念式에서 徐総長은式辞를통해

『六七年前本校를創設한 仏教界의 선각자들에게 경의를 표한다』고 말하고 『전통에 수반하는 名門校로서의 中興에 저해되는要素는 과감히 제거해서 東国人의 和合을 이루자』고 당부했다.

朴碧眼理事長은 告辞에서 『한민족의 雄飛은 全体의 和合을 통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開校六七周年을 紀念하기 위해 참석한 자매교 日本駒沢大구레바야시고교 總長에게 명예 철학박사 학위가 수여되었다. 구레바야시총장은 答辞에서 『同一한 建学理念으로 학문의 연구에 매진하는 東国大学校에서 박사학위를 받게되어 무한히 기쁘다』고 말하고 『東大캠퍼스에 仏教정신이충일한 모습을 보고깊은감명을받았다』고 말했다.

이날 朴碧眼理事長은 20년근무자 李昇旭박사를 비롯한 근무·근속자 10명을 표창했는데 특히 本校 수위로 근무하다 송년한 홍매주 수·목요일에 박물관

內外貴賓多數參席

新聞圖書
<5월8일 현재>
▲韓國語 敎科書(上·下) 서울대학교 語學敎育院 編 / 一潮閣 刊 / 上卷 4,000원 下卷 4,500원
▲韓國語會話 서울대학교 語學敎育院 編 / 一潮閣 刊 / 4,000원
▲韓國의 政治社會와 文化 李萬基 著 / 一潮閣 刊 / 上·下 各 3